

## 중 3학년, 2028 대입제도 개편을 기회로 만들어야

기고

정훈탁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과 장학관



올해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적용된다. 변화의 시기에는 걱정과 불안이 앞서지만, 오히려 기존의 공식을 깨뜨리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2025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 대입 개편안은 각각 분절된 것이 아니라 고교생활과 대입을 꼭짓점으로 하나의 집합을 이루고 있다. 이 중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은 고3이 됐을 때, 대학입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2028 대입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과 고교 내신 체제의 변화다.

먼저 수능은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 체계로 바뀐다.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기존의 선택과목제가 폐지된다.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출제하고, 응시자 모두 동일하게 응시한다. 이수가 됐던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은 수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 및 성적 제공, EBS 연계 방식(50% 간접 연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행 수능은 국어 영역에서 공통과목(독서, 문학)과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수학Ⅰ, 수학Ⅱ)과 선택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있다. 즉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산출에 차이가 있다. 사회·과학탐구는 17개 선택과목 중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반면에 2028 수능은 국어 영역 공통과목(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상대평가, 수학 영역 공통과목(대수, 미적

분Ⅰ, 확률과 통계) 상대평가, 영어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통과목(영어Ⅰ, 영어Ⅱ) 절대평가, 한국사도 기존과 동일하게 절대평가, 사회·과학탐구는 공통과목(통합사회, 통합과학) 상대평가, 직업탐구는 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 상대평가,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9개 과목 중 1개 선택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따라서 2028 수능에서는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어는 체계적인 독서를 기반으로 사고력과 문해력을 길러 지문 이해력을 키워야 하고, 선택지 분석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수학은 계열 구분과 대학별 지정과목이 없어지므로,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서 특정 분야 약점 없이 전 분야에 대한 탄탄한 기초·기본 학습이 필요하다. 사회·과학탐구는 고교 1학년 과정에 개설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깊이 있는 사고력이 필요하고, 2·3학년 과정에서 선택하는 세부 교과별 학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에 2028 수능 개편안에 따른 예시문항을 공개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고교 내신 체제는 5등급제로 바뀐다. 내신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고1·2·3 동일한 평가체제로 개편하고, 기존의 9등급제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5등급제를 도입한다.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를 시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를 병기한다. 표현을 바꾸자면 5등급제 상대평가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9등급제는 1등급(4%)·2등급(7%, 누적11%)·3등급(12%, 누적23%)·4등급(17%, 누적40%)·5등급(20%, 누적60%)·6등급(17%, 누적77%)·7등급(12%, 누적89%)·8등급(7%, 누적96%)·9등급(4%, 누적100%)이고, 5등급제는 1등급(10%)·2등급(24%, 누적34%)·3등급(32%, 누적66%)·4등급(24%, 누적90%)·5등급

(10%, 누적100%)이다. 과목 평가 결과는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를 함께 기재하고, 체육·예술·교양교과, 과학탐구실험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재한다. 또한 사회·과학 교과와 융합선택과목 9개는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미기재한다. 그리고 5지 선다형의 지식암기 위주 평가에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을 평가를 확대한다.

따라서 내신은 5등급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과목의 성적 관리가 필요하고, 수능과 직접 연계되는 과목도 충실히 공부해야 한다. 수능에 미출제되는 ‘미적분Ⅱ’, ‘기하’ 등은 자신의 진로와 계열에 따라 학교 수업에서 선택해 이수하는 것으로 부족한 점을 채워야 한다. 앞으로 수시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관련 교과에 대한 이수 여부, 성취도, 교과특기사항 등이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고, 정시 수능위주 전형에서도 수능성과 함께 교과평가 방식을 병행하는 대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내신 체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말을 바꾸면 등급별 비율(학생수)이 증가했기 때문에, 대학입시에서 계열 관련 교과 이수 정도에 대한 평가와 대학별 면접이 강화될 것이고, 수능최저학력기준 설정 등 수능의 역할 강조가 뒤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변화는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 당면한 사람들에게는 걱정과 불안이 앞선다. 하지만 자기주도성을 발휘해 모두에게 해당하는 변화를 나의 기회로 역전시킨다면 내가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주인공은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미래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실력이 존중받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꿈은 모두 소중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과 꿈이 실현될 수 있는 대입제도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 社說

## ‘전남 효자’ 김, 1차 산업구조 벗어나야

### 생산액 첫 8000억 돌파

전남 김 생산액이 수산물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8000억 원 고지에 올라섰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4년산 물김 생산 종로 결과 생산량은 40만8000톤, 생산액은 8000억 원을 달성했다. 국내 수산물 단일 품목으로 최조다. 전남김은 전국 생산량(50만9000톤)의 80%, 전국 생산액(9742억 원)의 82%로 압도적 우위다. 김 양식장 면적은 617㎢로 어류, 해조류, 패류 등 82개 양식 품종 중 가장 넓은 면적이다.

전남 김이 국내·외 명성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지만 도내 김 산업이 여전히 1차 산업에 머물고 있다. 요즘 대체인 ‘조미김’으로 가공하는 업체는 대부분 충청권에 포진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2차 가공 즉 조미김 생산업체는 전국 279개 업체에 달한다. 이중 충남이 119개 업체로 가장 많고, 전남이 54개, 경기도 48개를 점유하고 있다. 전국 톱 10인 조미김 업체 중 4곳이 충청권에 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이 연간 매출액이 300억~1000억원

대에 이를 정도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

물김(원조) 등의 생산량이 전국 최다임에도 전남이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쉬움이 크다. 김 산업만 봤을 때 재주는 전남이 부리고 돈은 타 지역이 걷어 들이는 형국이다. 심지어 타 지역은 조미김을 넘어 스낵 등 건강식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미김은 K-푸드를 상징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다. 현재 세계 김 시장의 70%를 대한민국이 점유하고 있다. 김이 ‘검은 반도체’로 불릴 만큼, 수출효자다. 전남도는 서둘러 질 좋은 김(원조김) 생산에서 조미김 가공, 수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김 생산-가공-유통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김 가공공장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까지 이뤄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청년 유출 등의 인구감소 요인 중 하나가 좋은 일자리 부족이 꼽힌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먹거리(산업) 육성도 좋지만 김 등의 우위자산을 보유하고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남의 미래는 없다.

## 선제 대책 필요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 올 첫 환자 발생해 치료중 사망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이번엔 확진된 환자는 70대 여성으로 지난 14일 다리 부종과 통증, 색 변화가 나타나 응급실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16일 심정지로 사망했다. 검사 결과 20일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가 가져온 팬데믹의 교훈은 질병에서 초동대처의 중요성이다. 국민 개개인의 예방 노력과 함께 보건 당국의 선제적 대처가 필요한 때다.

비브리오패혈균은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증식을 시작하고, 비브리오패혈균에 의해 발생하는 비브리오패혈증도 매년 5~6월 발생하기 시작해 8~9월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감염과 감염에 따른 사망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2명이던 패혈증 환자는 지난해 69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사망자도 14명에서 27명으로 증가했다. 치사율도 50%에 이른다. 주요 감염경로는 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은 경우,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한 경우라고 한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시작 후 24시간 이내에 다리 쪽에 발진, 부종, 수포 등의 피부병변이 생긴다. 이런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의존자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브리오패혈증의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높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려면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어패류는 5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85도 이상에서 가열 처리해야 한다. 어패류 조리 시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고 조리도구는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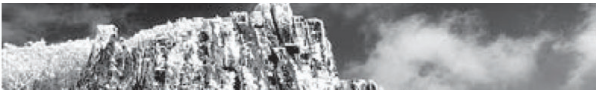
보건당국은 지구온난화로 바뀌는 감염병 지도에 맞춰 치사율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패류나 게, 새우 등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는 등 시민 개개인의 철저한 예방 수칙 준수도 필요하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전남일보 e-mail  
webmaster@jnilbo.com

전화  
(062)510-0321

### 서석대



대법원은 최근 ‘월성 원자력발전소(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최종 무죄를 판결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인 지난 2020년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시작됐다. 산업부와 한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따르기 위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조작했다는 혐의였다.

감사원 감사도 진행됐다.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감사 시작 전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했다며 감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무죄를 확정하며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대법 판결 이후 야당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 흡입 내기에 불과한 ‘보복·정치 감사’였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들의 실망감도 크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주 업무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고, 직무감찰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다. 성역 없는 감사를 통해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감사의 독립성이 필수다. 그래서 서 감사원법 2조 1항은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의 정치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 사무를 공정하게 감사해야 할 헌법적 의무 수행에 꼭 필요한 독립성은 감사원 스스로 지켜야 한다. 감사원을 공직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칭한다.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권력의 일탈을 막고 공직기강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국민들이 감사원에 거는 기대 역시 다른 정부기관보다 더 크고 엄격하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감사원의 노력을 기대한다.

박성원 편집국장

| 全南日報                           |                        |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 논설실장 이용환 | 편집국장 박성원      |
|--------------------------------|------------------------|-------------------------------------------------------------|----------|---------------|
| 민주주의 구현<br>진실보도 실천<br>지역개발 선도  | 대표전화                   | (062)527-0015                                               | 경영지원팀    | (062)510-0421 |
|                                | 기사제보                   | (062)510-0331                                               | 광고영업팀    | (062)519-0710 |
|                                | 편집부                    | (062)510-0412                                               | 문화체육부    | (062)510-0351 |
|                                | 취재1부                   | (062)510-0380                                               | 온라인뉴스부   | (062)510-0461 |
|                                | 취재2부                   | (062)510-0394                                               | 사진부      | (062)510-0391 |
| www.jnilbo.com<br>m.jnilbo.com | 정치부                    | (062)510-0340                                               |          |               |
|                                | 구독료 월 1만5천원<br>1부 800원 |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br>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          |               |
| 구독신청 (062)510-0471             |                        | 광고문의 (062)512-0100                                          |          |               |
| FAX (062)510-0436              |                        | 서울지사 (02)725-8890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